

전북자치도교육청, 2025년 수학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력신장·책임교육 ‘두 축’ 운영

수학마스터즈클럽 운영… 고교생 학생 수학 성장 관리

학력신장 캠프서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책임교육으로 수학 기초학력 향상·소외계층 교육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수학교육을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두 축으로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2025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수업혁신과 학생의 수학적 성장 지원, 수학 교사 네트워크 강

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문항 제작 연수, 문항 제작 지원단 2개팀 운영, 학생 문제해결반 수학마스터즈클럽 30팀 운영, 학력신장 캠프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인 수학마스터즈클럽은 문항제작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4~5명의 소규모 멘토

링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수학 성장을 관리하게 된다.

학력신장 캠프에서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공유된다. 이 밖에도 수학 독서교육, 학생수학 동아리 운영, 고교 선택과목 이수 지원, 수학중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어, 책임교육으로는 수학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수학교육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수학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수학AI기반 맞춤형 코스웨어 활용 학생 개별화 지원, 하루 10분 수학 학습 등을 권장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수학교육으로는 교육부와 함께하는 소외학생 난산증 학생 지원, 소규모 멘토링 사제동행팀 운영, 수리소양 진단 및 수학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와 함께 일상과 연계하는 수학체험전 운영, 모두가 함께하는 수학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과 참여의 수학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학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수학 관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기술이전 ‘두각’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업 발전에 큰 역할
기술사업화 등 최근 3년 전북 전체 40% 이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기술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 연구실의 우수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부문에서 전북 전체 대학의 40% 이상을 전북대가 차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정보공시를 기준으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는 최근 3년 간 209건에 총 49억 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보였다. 이는 전북 소재 대학 전체 기술이전 금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특히 전북 지역 내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한 비율이 3년 동안 60% 이상으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과 사업과 비중이 매우 높음을 방증한 결과다.

또한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에서도 독보적이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특허 출원 661건, 등록 402건으로 역시 전북 소재 전체 대학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해의 특허의 경우에도 출원 118건, 등록 22건으로 각각 전북 소재 전체 대학의 44%, 81%를 차지했다.

손정민 산학협력담당장은 “전북대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이 지역 기업에서 상용화되면 지역 전략 산업 발전을 통한 대학·지역 상생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우수 기술들이 지역 산업계로 스며들어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재학생

싱가포르 5성급 호텔 인턴십 합격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재학생 8명이 싱가포르 5성급 호텔 인턴십에 최종 합격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싱가포르 5성급 호텔인 콘래드 센테니얼 호텔에 4명, 콘래드 오차드 호텔에 4명이 합격했다.

합격생들은 2025년 2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1년 또는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졸업 전 해외 정직원 취업 및 인턴십 경험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06년 2명의 해외 취업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현재까지 해외 취업(인턴십 포함) 누적 인원이 377명에 이른다.

특히 해외 경력을 활용한 졸업생들은 서울 시내 5성급 호텔의 객실부장과 식음료부 차장, 인사부 또는 재경 부서, 해외 5성급 체인 호텔 세일즈 프로모션 매니저, 국민연금공단 및 부산관광공사 등 공공기관과 항공사 승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에 인턴십 면접에 합격한 황정인(3년) 학생은 “학과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교수님들께서 직접 학생들과 동행해 취업 지원을 위해 애써 주셨다”며 “이번 인턴십 합격이 너무 기쁘고 미래 경력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철도시스템공학부

첨단 철도 신호 실습실 구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창의공과대학 철도시스템공학부가 첨단 철도 신호 실습실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실습교육에 나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철도시스템공학부는 국내 철도신호 시스템 전문기업인 유경제어(주)와 협력해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선로전환기, 대형 계전기 등 약 2억원 규모의 설비를 교내 실습실에 구축했다.

실습실에 구축된 장비들은 철도신호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에 필수적인 장비들로, 실습실 전면에 설치된 제어관은 실제 철도 신호 시스템 작동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10세트 실습용 랙에는 대형무극선조계전기 14개, 대형자기유지계전기, 계전기락 15개 등이 포함됐으며, NS-AM형 선로전환기는 현장과 동일한 방식의 실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철도시스템공학부 학부장 송문규 교수는 “첨단 실습실에서는 실제 현장과 동일한 사양의 장비를 활용한 전문적인 실습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며 철도신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무 적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대학교 해외 교육봉사단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수파누봉 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단기 해외교육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외 교육봉사단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한국-라오스 양국 간 관계 더욱 강화하는 계기’

전주대, 라오스 단기 해외교육봉사 성료
K-숏폼 배우기 등 현지 학생들에 큰 호응

전주대학교 해외 교육봉사단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수파누봉 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단기 해외교육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 사업은 예비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에 대한 선진화된 교육 원조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라오스에 파견된 봉사팀은 한국어팀(한국어 및 한국 문화 등), 다학제팀

(수학, 과학, 예체능, 문화, IT)으로 편성됐다. 특히 봉사팀이 진행한 △K-숏폼 배우기 △K-POP으로 배우는 한국어 △시로 노래 만들기 △한국어 육하원칙 배우기 △한국어 문장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등은 라오스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라오스 기관 관계자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은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고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교류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수 사회봉사센터장은 “학생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기우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위해 매년 개발도상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올해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안내

전북교육청, 설명회 열어

초등 4학년 구강진료 지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민속도가 높았던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초등학교 4학년 구강진료 지원,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신규 조제 제정에 따라 성조숙증 학생 관리 및 체계적인 한혈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가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보건교육의 질적 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은 물론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 건강증진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를 비전으로 △평생건강 기반 보건교육 내실화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취약학생 건강보호를 3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신규 공무원 정착, 선배들이 돕는다

전북교육연수원, 11월까지 ‘디딤돌’ 멘토링 프로그램

매월 ‘디딤돌의 날’ 운영… 멘토·멘티 간 소통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2월부터 11월까지 ‘디딤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디딤돌’은 선배 공무원(도우리)과 신규 공무원(디답이)이 소그룹으로 매칭,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제도다.

신규 공무원에게는 실무 경험을 전수하고, 조직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매월 ‘디딤돌의 날’을 운영해 멘토와 멘티가 정기적으로 만나 업무 관련 교육과 소통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완성 원장은 “신규 공무원의 빠른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디딤돌’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선정

전주공고, 올해 스마트건설 분야에… 5년간 60여억원 지원받아

전주공업고등학교(교장 오홍화)가 2025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공업고 토목과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스마트건설 분야에 최종 선정돼 5년간 약 6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신산업분야 맞춤형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주공업고 토목과는 스마트건설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과 국가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

/장은성 기자

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건설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건설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이루는 산업으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공업고는 스마트건설 기술을 중심으로 연간 100시간 이상, 3년간 총 300시간 이상의 심화 실무 훈련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스마트 건설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전주공업고의 스마트 건설 분야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실 구축, 첨단 기자재 도입 등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시군, 전북 RISE 성공 추진 협력 강화

간담회 열고 지역 특성 반영 교육·산업 연계 방안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 혁신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14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일 영상회의를 열고, 각 시군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고등교육 체계 개편과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역 혁신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산업 연계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자체·대학·산업계 간 30여 차례의 간담회,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며, RISE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 교육부 최대 재정지원사업인 ‘글로벌대학30’ 공모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만호 기자